

지역 소식통

정읍시, 성인비만관리 '비만 BYE, 건강 H' 운영

정읍시보건소는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비만의 위해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비만 위험요인을 집중관리하여 건강생활실천을 돕는 성인비만관리프로그램 '비만 BYE, 건강 H' 참여자를 모집한다.

비만 BYE, 건강 H'는 비만관리를 위하여 주 2회 신체활동 및 영양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회기에 걸쳐 진행된다. 신체활동은 전문강사와 함께 기구를 활용한 소그룹 운동법 및 운동처방사와 함께 홈트레이닝법을 배울 수 있으며, 체중감량을 위한 하루 필요 열량 구하기 등 비만 맞춤형 주제별 영양교육과 더불어 개인별 영양상담 및 식단관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참가자들이 10회기의 신체활동과 영양교육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대산면 3개 마을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고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대산면 3개 마을(대촌마을, 구동마을, 백운마을)을 생명사랑 마을로 지정하고 50개의 농약안전 보관함을 보급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은 농촌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약 음독자살을 예방하고, 안전한 농약 관리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5년부터 시작돼 무장면에 90개를 보급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76개의 농약안전보관함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대산면에 50개의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해 농약 사용률이 높은 농촌지역의 중독적인 음독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남주영 센터장은 "지역주민의 안전한 농약관리 문화가 형성되고 생명존중문화가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귀농귀촌도시부문 대상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11년 연속 수상

고창군은 서울 가든호텔에서 열린 '제13회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귀농귀촌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창군은 11년 연속 선정됐다. 시상식은 조선비즈가 주최하고, 조선일보, TV조선에서 후원했으며 소비자조사 및 심사위원회의 최종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고창군은 2007년 전라북도 최초로 귀농인 지원요체를 제정한 이후, 영농정착금 지원,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소규모 귀농귀촌 기반조성지원 등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에 노력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대출자의 자부담 이자 중 1%를 3년간 군비로 추가 이차보전을 하여 귀농 초기 충분한 소득이 없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예비 귀농귀촌인이 고창에서 먼저 살아보고 귀농귀촌을 결정할 수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6년째 운영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체류형센터 연수생은 주택 30동에 3월부터 11월까지 거주하며 텃밭과 공동하우스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영농기술교육과 현장실습 뿐 아니라 고창알아가기 프로그램을 통해 고창살이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어 도시민의 호응이 높다.

올해에도 도시민 유치를 위해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체험학교 등 4개 분야 2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문화 이해교육, 지역민과 함께하는 실용교육, 재능기부사업 등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의 화합을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화합하고 상생 발전하여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익현 군수, 정부세종청사 방문 국가예산 확보 총력

부안 반계 유형원 기념관 건립 사업 등 12개 사업 618억원 지원 건의

권익현 부안군수, 정부세종청사 방문 국가예산 확보 총력. 부안 반계 유형원 기념관 건립 사업 등 12개 사업 618억원 지원 건의. 권익현 부안군수가 24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권익현 군수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을 차례로 방문해 부안 반계 유형원 기념관 건립 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실학을 대표하는 반계 유형원 선생을 기리는 기념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와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 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반영을 당부했다.

또 상습침수 해소를 통해 지역주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중북지구 풍수해생환권 종합정비사업과 2023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캠퍼리 개최지로서 부안군 농촌생활권 복원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2023년도 농촌협약 선정, 부안군 기반시설

정비사업, 해돋이마루 부안읍권역 관광센터 건립 등 총 12개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618억원(총사업비 1081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권익현 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주요 현안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가 절실하다"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속도감 있는 마무리와 부안발전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를 지속 방문해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김광수 부안군의회 의장,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100만 서명운동 동참

부안군의회 김광수 의장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100만 주민 서명 운동 홍보 릴레이 주자로 동참했다.

김 의장은 이원택 국회의원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서명운동 릴레이에 나섰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가에서 방사능 비상계획 구역을 원전 30km로 지정하고 있으나, 국비지원이 없어 해당 지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제기한 청원으로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방사선비상계획



회구역에 해당돼 이미 예산 지원을 받는 5개 원전 소재지를 제외한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도 국비를 지원 받아 방사능 방재 및 안전관리 등 주민보호

사업과 복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김광수 의장은 "부안군 등 23개 지자체의 지역민들이 방사능으로부터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원자력안전교부세는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며,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100만 주민 서명 운동에 지역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릴레이 홍보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의장은 다음 주자로 부안군의회 이현기 부의장과 김두례 의회운영위원장을 지명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는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사례 1분기 평가에서 '통합위임장 공동 활용 토지 관련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시민 중심 적극행정 모범'

정읍시, 행안부 적극행정 전국 우수사례 선정

정읍시는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사례 1분기 평가에서 '통합위임장 공동 활용 토지 관련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 1차 자체평가와 2차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추진과정 노력도, 개선 효과, 타 지자체 확산가능성 등을 고려한 사례 중 행정 절차 간소화 부문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토지분할 위임신청 시 소유권이전, 매매, 건축 등의 사유로 토지분할이 이루어질 때, 각 관련기관과 부서에서 요구하는 위임장 제출 횟수가 단계별로 총 3번으로 개별 3장의 위임장을 작성·제출해야 했던 절차를 통합위임장 1장으로 처리할 수 있게 개선한 것이다.

정읍시는 관련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개발행위 허가부서인 도시과와 토지이동처리 부서인 민원자적과와의 협력을 통해 행정절차 개선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민원인은 한 번의 방문과 1장의 통합위임장 작성으로 토지이동(분할)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기존 방식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큰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정읍시가 시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추구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았음을 의미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제로 해소와 적극행정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시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해수욕장협 7월 7일 일제 개장 결정

부안군은 지난 2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해수욕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개장기간과 안전관리 등 해수욕장 주요 운영·관리 사항을 심의, 확정하였다.

이날 회의는 권익현 군수 주재하에 부안해양경찰서와 부안경찰서, 전주시립공원사무소,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안구조대, 변산지역발전협의회, 해방대 부안전우회 등 관계기관 및 단체들이 참석해 해수욕장 개장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협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사항으로는 우선, 해수욕장 개장기간은 7월 7일부터 8월 15일까지(40일간 / 개장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하고, 폐장 후에도 이용객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8월 31일까지 안전관리 상태 유지와 각종 편의시설 개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은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에 따라 중대본의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며, 추후 해수부의 대응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이에 부합하게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채용하여 주간은 물론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야간에도 추가 배치하고 특히 오전 7시~9시 사이에 많은 관광객들이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변순찰조를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기자

Advertisement for 'Earth's warmest spot' featuring a polar bear and text: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The place where the earth is getting warmest 'Arctic' Please protect our home). It includes a warning about global warming and carbon emissions.